



발로 뛰며 온몸으로 느끼는 현대사 교사연수

글 · 정양례 경기도 광명 하안중학교 교사

학기 중 연수는 계륜 같은 것

의기충천. 처음 연수를 신청할 땐 언제나 그랬다. 그러나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신청서를 써낸 오른손을 저주하며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이놈의 손은 가만있질 않고 신청서에 땀 사인을 해 보냈을까? 그냥 집

에서 책을 보며 뒹구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텐데. 쓸데없는 호기심이 문제야 문제!!!”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곤 한다.

물론 연수를 마치고 나면 책으로 얻는 것보다 훨씬 값진 선물을 하사받은 마음에 저주했던 오른손을 사면

하고 축복까지 내려주긴 하지만 …….

역사과가 아니더라도 사회과목과 관련 있는 교사라면 대부분 현대사 연수에 대한 갈망을 안고 있음을 본다. 중학교의 경우 2학년 세계사 영역에서 시민혁명을 다룬 후에 3학년에 올라와 서양의 민주정치의 발달 과정을 다시 되짚어 본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의 발달 과정은 국사책 후미에만 언급될 뿐 정치영역에서는 생략되거나 어울리지 않는 영역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이 정치과정도 교과서 개정으로 이제 1년 동안만 유효하다.

역사교육은 가지 않았던 길을 상상해 보게 하는 것

〈선생님과 함께하는 현대사 이야기〉는 한국사 수업 진행에 고민이 많은 교사들의 현대사 연수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단비 같은 과정이 아닐까 싶다.

첫 강연은 역사교사들 사이에선 명성이 자자한 역사교육연구소장이자, 신현고등학교 교사인 김육훈 선생님의 〈민주주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 근현대사〉였다.

김육훈 선생님은 처음 강연을 제안 받을 때만 해도 ‘역사교사 대상이겠거니’ 하고 심도 깊은 주제를 준비하셨다가, 연수생 대부분이 초등학교 교사이거나 역사 전공자가 아님을 알고 긴급히 주제를 바꾸셨다 한다. 저녁 식사 후 이어진 강연이 주로 ‘수업 방법’ 과 관련된 사례 발표 수업이었던 데 반해 이 강연은 지식 면에서 유익했다.

우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행사 철이 되면 설새 없이 “대 ~ 한민국”을 외쳐대며 전에 없던 애국심을 드러내곤 한다. 그러나 그토록 열렬히 외쳐대던 우리 국호의 탄생 과정에 대해선 그다지 호기심을 보이지 않는다. 막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겠거니 하고 지나쳤던 게 내 모습이기도 했다.

강연은 ‘대한민국’의 유래와 그 안에 ‘백성, 신민, 인민, 국민’ 틀을 제시해 각각의 개념이 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육훈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주는 다음의 메시지는 강연 내용을 떠나 긴 울림으로 남았다.

“역사를 공부하며 가지 않았던 길을 더듬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현실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실이 된 과거 말고, 당시에 ‘가지 않았던 길’을 통해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방법이 아닐까요?”

‘지금’, ‘여기’의 역사를 가르치라

저녁을 먹고 시작한 강연은 충북 반도체고등학교 원종혁 선생님의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는 현대사 수업〉이었다.

원종혁 선생님은 반도체고등학교에서 〈사료와 영상으로 배우는 마이스터고 국사 배움책〉을 교재로 만들어 수업을 진행한다.(충북 반도체고등학교는 작년에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었다.) 원 선생님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를 여러 권 가져와 수강생들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지역과 연관된 사료가 풍성하고 구성이 탄탄해 모두가 탐을 내었다. 결국 자료를 공개하셔서 탐나는 자료를 통째로 얻는 행운을 얻은 게 이번 연수의 큰 소득 중 하나였다.

학기 초 개학날에 3·1운동 계기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수업일기 쓰기를 통해 수업 방법을 꾸준히 개선해 가는 것들은 학교에 돌아와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아이디어였다.

무심한 듯 툭툭 던지는 유머 덕분에 강연 내내 웃음과 탄성이 이어졌던 원 선생님의 강연 요지는 ‘지금’ = 현대사를, ‘여기’ = 지역사로 학생들의 현재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서 가르치라는 것이었다.



자료와 영상으로 배우는 마이스터고 국사 배움책

“반도체고교처럼 손재주가 좋고 실험·실습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역사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프로젝트 수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문서를 만들어 자신만의 역사책을 만든다든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문화유산지도를 아크릴판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처지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방법을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역사수업이 아닐까요?”

그러게요. 원종혁 선생님의 성실함과 열정과 능력이 참으로 부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역사교사모임의 한 서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역사 비전공자로서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다.

아이들과 현대사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수송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배성호 선생님께서 첫날 마지막 강연을 이어가셨다. 초등학교에선 6학년 사회

가 모든 교사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지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들이었다. 초등학교에서 역사는 6학년 1학기 동안 한국사 전체가 다루어지는데, 일제고사 실시 전만 해도 교사가 교재를 재구성해서 자유로운 수업이 가능했던 반면, 일제고사 실시 후에는 시험 결과에 대한 압박으로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한다.

배성호 선생님은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림책을 여러 권 들고 나와서, 문학과 역사가 만나는 시점에서 보다 풍성한 수업이 전개될 수 있을을 여러 사례를 들어 보여주었다.

강연을 듣고 나서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 현장에서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 집에 오자마자 『고릴라 왕과 대포』, 『해를 삼킨 아이들』, 『역사가 흐르는 한강』 등을 주문했다. 그림책은 연령을 초월해 다양한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매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던 시간이었다.

다양한 책 소개와 함께 신문 활용 수업에 대한 안내도 유용했지만, 강연이 끝나고 한동안 맴돌았던 말은

문학과 역사가 만나 보다 풍성한 수업이 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소개해준 배성호 선생님



유스호스텔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본부였다. 영문자 HOSTEL의(오른쪽 사진) 끝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안기부장의 사무실이 있었다.

“수업은 예술적 행위” 라는 아이즈너의 인용구였다. 수업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적으로 창조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자주 망각한 채 진도에 쫓겨 구태의연한 수업을 이끌었던 자신을 잠시 부끄러워하기도 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배성호 선생님의 강연은 ‘희망’을 이야기하며 끝을 맺었다.

“한반도가 완전히 초토화 됐던 한국전쟁 당시 『타임지(紙)』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또 혹자는 ‘민주주의는 GNP가 \$5,000 ~ 6,000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고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1960년 상황에서 4·19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남산, 굴욕과 억압의 역사를 한 몸에 휘감고 서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현대사 이야기〉 연수의 정점은 한홍구 교수님과 함께하는 현대사 답사였다. 서울에는 ‘답사’ 하면 떠올려지는 궁궐과 종묘 말고 보물처럼

숨겨진 현대사 유적지들이 많다. ‘이곳들을 구슬을 엮듯 한 줄에 꿰어서 아이들과 현대사 유적지 답사 기회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자주 했다. 이번 연수가 그런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침식사를 마치고 서해성 선생님의 안내로 답사가 시작된 곳은 유스호스텔 왼편 잔디밭으로, 일제 통감부가 있던 곳이다. 이곳은 1910년 일제 강점기 시작되고 난 뒤에는 총독부로 격상된다. 원래 남산은 봄·가을 초제를 지내는 신령스러운 산인데다 종묘와 궁성이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곳이라 집은커녕 사람들의 출입조차 제한됐던 곳이라 한다. 바로 그곳에 식민지 지배를 총지휘하던 건물이 들어선 것이다.

정치세력 관계의 정점에 있었던 남산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목었던 ‘남산 유스호스텔’은 국가안전기획부(현재 국가정보원)의 본부가 있던 자리였다. 군사정권 시절 ‘남산’ 하면 떠올렸던 무시무시한 공간이 이처럼 유스호스텔이라는 가벼운 새 옷을 입고 서 있어, 누구도 옛 건물의 용도를 알지 못한 채 지나치기 십상이다.

2009년 서울시는 ‘남산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역사성의 지속적인 회복(回復)과 시민과의

소통(疏通)을 통한 새로운 남산 자락문화의 창조' 라는 미래 비전 아래 서울의 상징인 남산의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프로젝트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려 한다면 “옛 안기부 건물 지하를 공개하라. 그리고 이 건물을 유지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남산 이야기로 오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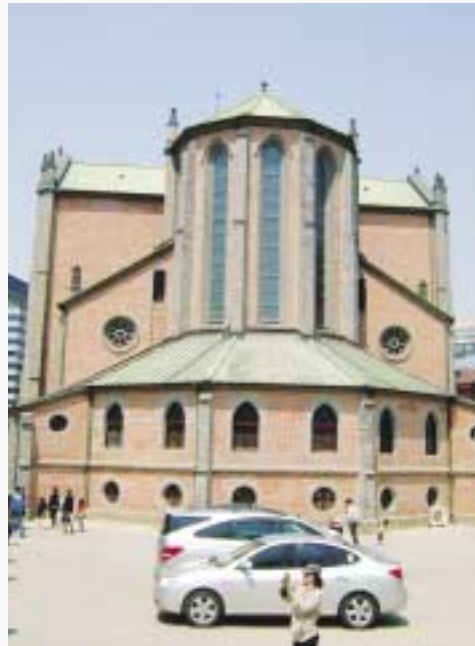
산 아래의 함성들,

명동성당과 평화박물관, 서대문형무소

민주화의 메카로 불리는 명동성당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이회영, 이시영 6형제’ 비석을 보며 다시금 일제 강점기를 떠올렸다. 조선 최고의 부자는 나라의 운명과 함께 가산도, 목숨도 함께 내던졌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후에 명동성당에는 되찾은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 1987년 6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된 목소리로 독재에 항거했다. 들여다 보면 성당이 위대했다기보다 그 안의 시민들이 위대했음을 알 수 있는 장소, 명동성당.

점심식사를 마치고 찾은 곳은 길모퉁이에 쫘쫘 숨겨진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다. 현재 <평화박물관> 개관을 준비 중인 이곳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두 분이 정착 지원금으로 받은 돈을 ‘베트남전진실위원회’에 기탁하시면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 평화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늘 피해자로 기억하고 있던 우리의 역사는 베트남과 같은 나라 밖에서는 가해자로서의 잔혹함도 떠안고 있기에 반성과 성찰의 공간, 또 평화교육의 요람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답사 장소인 서대문형무소로 향했다.

서대문형무소는 나로선 세 번째 방문이다. 이번에는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보수공사가 한창이었다. 국적 불명의 공간이라고 말이 많았던 유관순 기념관도 재정비된다고 한다. 그러나 1945년까지의 기억만을



답사가 진행됐던 명동성당, 평화박물관, 서대문형무소(위부터)

전시하는 이곳의 고집은 개보수 공사와 상관없이 지속될 모양이다. 한홍구 교수님의 언급이 없었으면, 이곳



살아 뛰노는 역사 수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한껏 거두어 갈 수 있는 현대사 교사연수(사진·Juan)

에서 사형을 당한 조봉암 선생이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역사조차 잊을 뻔 했다.

답사 후에

올해는 교원평가다, 전교조 명단 공개다 해서 이래저래 몸과 마음이 분주한 학교 생활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러저런 외부의 논란을 떠나 교단에 선 교사라면 스스로를 먼저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수업을 위해 준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연수 기간 같은 방을 썼던 ‘초등학교 역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최보람 선생님, 한국사를

뛰어넘어 아이들과 독서 동아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춘천의 정광임 선생님,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답사활동을 이끌었다는 이영례 선생님과과의 대화는 온라인 연수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발로 뛰며 온몸으로 느끼는 현대사 수업을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현대사 이야기> 연수에 꼭 참여해 보시라. 살아 뛰노는 역사 수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한껏 거두어 갈 수 있을 터이니…….